

은행 규제 풍선효과?… 가계도 기업도 ‘보험 대출’ 노크

지난해 말 대출채권 잔액 253조
전년동기대비 7조2000억 늘어
지난해 2분기부터 꾸준한 증가세

보험사를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사를 통한 대출이 지속해서 높아질 경우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출채권 잔액은 25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조2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이 크게 늘고 있는 모습이다.

먼저 지난해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총 47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특별계정 포함)〉

(단위:조원)

구분	2019년	2019년	2020년	2020년	2020년	2020년	증감	
	9월말	12월말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전분기말비	전년동기비
대출전체(총여신)	229.3	234.7	238.4	240.9	245.8	253.0	7.2	1.8
가계대출	120.4	121.1	121.3	120.1	121.6	123.1	1.5	0.8
(보험계약)	64.5	65.1	65.0	63.1	62.9	63.5	0.6	-
(주택담보)	44.2	44.0	44.1	44.8	46.4	47.2	0.8	1.0
(신용)	7.3	7.3	7.3	6.9	6.8	6.8	-	-
(기타)	4.4	4.7	4.9	5.3	5.5	5.6	0.1	△0.2
기업대출	108.7	113.4	117.0	120.6	124.0	129.7	5.7	1.0
(대기업)	40.2	42.2	42.6	44.5	45	47.3	2.3	0.3
(중소기업)	68.5	71.2	74.4	76.1	79	82.4	3.4	0.7
※부동산PF	27.2	29.3	31.5	33.6	34.9	36.4	1.5	0.3

*2020년 4분기 중 증감액(2020년 12월말 잔액-2020년 9월말 잔액)-2019년 4분기 중 증감액(2019년 12월말 잔액-2019년 9월말 잔액)



험사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2분기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 가격이 지속해서 늘어나며 주택 구매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업대출도 129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3000억원 증가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액도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조1000억원, 7조1000억원 늘어났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과 기업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수요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 중후반대인 것과 비교하면 보험사의 주택담대 금리도 3~4%대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보험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우대 금리도 적용받을 수 있어 접근성도 낮다.

업계 관계자는 7일 “최근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영끌’까지 나서는 추세다”라며 “빛을 내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만큼 그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 대출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도 보인다”고

했다.

다만 지속해서 보험 대출에 대한 수요가 이어질 경우 업계도 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는 2023년 새롭게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 ▲신지급역력제도(K-ICS)에 따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대출 전체 연체율은 0.17%로 전년 동기보다 0.09%포인트 감소했다. 전분기와 비교해도 0.03%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지속해서 연체율 등을 확인하며 재무건전성 악화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도 대출 수요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무턱대고 대출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를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NH농협금융 “친환경 활동으로 ESG 애쓰자” 손보험, 보험설계사 상설시험장 마련

손병환 회장 캠페인 참여
첫째 주 수요일 ‘애쓰자 데이’

NH농협금융지주는 임직원의 생활 활속실천 행동 및 계열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행력 제고를 위해 사회가치 및 녹색금융 캠페인 ‘ESG 애쓰자’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캠페인은 지난달 개최된 ‘제1차 사회가치 및 녹색금융 협의회’에서 발표됐으며, 농협금융 ESG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임직원 및 그룹전체의 ESG 실천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캠페인 명칭인 ‘ESG 애쓰자’는 ESG 경영 실천 캠페인을 강조하기 위해 영문 E·S·G와 한글 모음을 결합해 가시성을 높이고, ESG 영문발음과 유사한 발음구조로 인지성을 높였다.

캠페인은 ▲친환경 활동 애쓰자 ▲탄소배출감소 애쓰자 ▲사회공헌 애쓰자 ▲나눔과 기부 애쓰자 등의 4가지 슬로



NH농협금융지주 손병환 회장이 ‘사회가치 및 녹색금융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NH농협금융지주

건 아래 세부 실천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직원들의 활동 뿐만 아니라 업무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사무실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등 회사 차원의 활동도 포함된다.

특히 개인탐블러 사용 등의 실천사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해 추후 추가하

기로 하는 등 캠페인 내용 모두 깊게 고민했다.

오는 11월까지 매주 첫 번째 수요일을 ‘애쓰자 데이(Day)’로 지정하고, 부서·영업점별 매월 한 가지 메인 구호를 정해 자체실정에 맞는 캠페인 활동을 수립해 농협금융 전 임직원이 캠페인 활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임직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내 IT시스템, 전용 어플 및 사내방송 등을 통해 해당 캠페인을 안내하고, 향후 캠페인 실행 우수 직원과 부서에도 포상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손병환 회장은 “‘농협이 곧 ESG’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임직원이 먼저 앞장서서 ESG를 실천해야 한다”며 “코로나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어려운 사회여건을 감안해 농협의 일원으로서 친환경 활동과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우리은행 본점 외벽글판 문구 공모전 실시

누구나 참여 가능

우리은행은 오는 23일까지 우리은행 본점 건물 외벽글판 문구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우리은행 측은 “이번 공모전은 서울 명동 중심지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 글판에 고객들이 직접 응모를 통해 선정한 문구를 게시해 고객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고 밝혔다.

공모전 참가는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 주제인 우리가족, 우리나라, 우리지구, 우리의 꿈(희망) 중 자유롭게 1개(중복 응모 가능)를 선택해 1~2줄 정도로 공감과 감동을 줄 수 있는 문구를 적어 제출하면 된다.

1등(주제별 1명, 총 4명)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함께 우리은행 본점 글판에 문구를 게시하며, 그 밖에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기프티콘을 제공한다.

공모전 접수마감은 23일까지이며, 접수방법은 우리은행 모바일WON뱅킹, 인터넷뱅킹 및 공식 인스타그램의 이벤트 페이지에 소개된 공모전 안내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13일에 우리WON뱅킹 및 우리은행 인터넷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참신하고 감동적인 글귀를 통해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를 통해 우리은행 본점 글판이 도심 속 시민들에게 힐링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석 기자 ysl@

KB국민은행 챗봇으로 개인 맞춤서비스

KB국민은행은 챗봇 ‘비비’를 통해 개인화 맞춤 서비스와 बैं킹업무 처리를 제공하는 챗봇 서비스를 고도화 했다고 7일 밝혔다.

챗봇 비비는 KB국민은행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쉽고 간단하게 채팅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금융 챗봇서비스이다. 이번 서비스는 KB스타뱅킹, 인터넷뱅킹, 리브(Liiv), KB스타알림, KB마이머니 앱에서 365일 언제나 이용 가능하다.

챗봇 비비의 특징은 ▲실제 직원처럼 과거 가입 경험이나 보유상품 및 검색 이력 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 상품을 추천 등이 있다.

/안상미 기자

대도시 역세권 시험장 구축

손해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 시험제도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손보험회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을 위한 상설시험장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상설시험장은 서울, 부산 등 4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오는 4월부터 시험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험장은 응시자의 접근 편의성 등을 고려해 주요 대도시 역세권에 있는 건물을 시험장으로 구축했다.

/백지연 기자

특히 기존에는 시험장 대관 어려움 등으로 매월 7일간 시험을 시행해 왔다. 이번 상설시험장 운영을 통해 월 15일까지 시험 실시일수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응시수요 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안정적인 시험장 확보로 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만족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보험회는 앞으로도 회사와 협의를 통해 보험설계사 시험제도와 관련한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은행별 점포수 변동 추이〉

(단위:개)

구분	2015년말	2016년말	2017년말	2018년말	2019년말	2020년말
시중은행	4,314	4,144(△170)	3,861(△283)	3,834(△27)	3,784(△50)	3,546(△238)
지방은행	964	967(+3)	952(△15)	933(△19)	933(-)	889(△44)
특수은행	2,003	1,990(△13)	1,976(△14)	1,999(+23)	1,992(△7)	1,970(△22)
합계	7,281	7,101(△180)	6,789(△312)	6,766(△23)	6,709(△57)	6,405(△304)

주)()은 전년대비 증감

/금감원

작년 銀 점포 334곳 폐쇄… 비대면거래 영향

2020년 국내은행 점포 운영현황

작년에만 은행들이 330곳이 넘는 점포(지점+출장소)를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가 급증한 탓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점포수는 총 6405개로 전년 말 대비 304개가 줄었다. 폐쇄점포가 334개며, 신설점포가 30개다.

감소폭으로 보면 지난 2017년 이후 가장 크다. 지난 2018년, 2019년에는 각각 23곳, 57곳 감소에 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확대와 중복점포 정리 등의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감소규모가 238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각각 44개, 22개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의 폐쇄점포수가 83개로 가장 많았고 ▲하나 74개 ▲우리 58개 ▲부산 22개 ▲신한 21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광역시 등 대도시권의 감소규모가 251개였으며, 비대도시권은 53개 점포가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포 감소로 인한 금융소비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점검차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